



# 한 곳에서 한 눈에 보는 티베트인의 삶과 예술

## 10월 28일까지 북촌동양문화박물관 티베트 전시회 열어

티베트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데 지로 6000-7000m 높이나 되는 고봉들로 둘러싸여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린다. 이곳 티베트 사람들은 들판에 천막을 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산다. 양이나 야크를 잡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넣어 말려 조금씩 베어 먹는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그들이 즐겨 마시는 수유차가 끓을 때까지 마니차를 돌리고 '옴마니 파드메 훔' 관음보살의 만트라를 염송하며 자연과 더불어 차를 마신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불교는 삶의 목적이며

그들의 모든 가치관이 불교에 닿아 있다. 그들에게는 이번 생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그들에게 삶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고, 죽음을 건너면 또 다른 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내세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수백, 수천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걷거나 오체투지로 성지를 순례하며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다. 티베트인의 삶과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북촌동양문화박물관(관장 권영두)은 10월 28일까지 티베트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 하는 '티베트, 영혼의 울림' 전시를 연다. 30여 년간 티베트를 오가며 한두 점씩 수집해온 권영두 관장은 3개의 전시실에 티베트 불상, 탕카(탱화), 불갑(不釐), 불교 의식과 관련된 예술품 및 민속예술품 등 약 300여 점과 티베트의 삶과 자연을 담은 그림 및 사진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티베트 금속공예는 정교하고 섬세하다. 이 지역에서 금(金), 동(銅), 티키·산호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구할 수 있어 고대부터 금속공예가 발달했다. "티베트 금속공예는 세계최고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백 년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유물들을 보면 장인들의 섬세함을 볼 수 있죠. 생활 자체가 불교인 티베트인들은 신심으로 공예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에 관한 공예품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권영두 관장은 티베트 금속공예를 극찬하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금동 석가여래 좌상을 보여줬다. "이 불상은 건장하고 당당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티키석과 산호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누금세공(鍍金細工)으로 신체에 밀착된 범의 굴곡이 정교하고 세련된 불상입니다."

사람의 뼈로 만든 공예품도 있다. 인골 찻잔과 두개골로 만든 공양구(가) 그것. 열반한 고승의 정수리 두개골로 만든 공양그릇은 불전에 공양물을 올리거나 실제 차나 티베트 상식(常飮)인 잠파(rtsam-pa)를 먹을 때 식기로 사용했다. 무릎관절 뼈를 이용해 만든 찻잔은 차를 마실 때마다 무상관(無常觀)을 깨달으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 밖에 전시관에서는 수정(水晶)으로 정교하게 조각한 사비관음보살상, 만다라 그림과 은으로 조각한 만다라, 티베트 탕카(탱화) 등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다라 그리기, 마니차 체험 등 전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권영두 관장은 "티베트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종교와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오랜 수집기간을 통해 소장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부시를 지니고 다닌다. 백동(白銅)에 연화문을 정교하게 조각한 부시는 야크 가죽으로 된 끈과 고리가 달려있고 티키석, 산호, 유리 등의 보석이 박혀 있다.



금동 석가여래 좌상(18-19세기)



부채꼴 모양 부시(19세기)



인골 공양구(19세기)



철보탑(18-19세기)

## 산사의 가을, 음악과 함께 즐겨요

쌀쌀한 가을 밤 고즈넉한 산사에서 하얀 달빛아래 찬공기를 마시며 음악을 즐기고 싶다면 산사음악회를 찾아 떠나보자. 재즈, 탱고, 국악, 뉴에이지 등 장르도 다양하다.

수려하고도 빼어난 가을풍경을 자랑하는 경북 청량산 청량사는 10월 8일 오후 7시 산사음악회를 연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산사음악회에는 조관우, 재즈보컬 웅산, 팝핀 현준, 박애리, 인드라 스님, 탱고 연주팀 '코야모러스&최현아', 소프라노 김혜경, 청량사 꼬마풍경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함께해 고품격 산사음악회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축제의 역할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054)672-1446

재즈와 뉴에이지에 빠지고 싶다면 월정사로 떠나보자.

월정사(주지 정남)는 10월 15일 오후 7시 초루 노리히로(바이올리니스트), 임인건(재즈피아니스트)을 초청해 음악회를 연다. 초루 노리히로는 뉴에이지 연주그룹 '어쿠스틱카페'의 리더로 일본 10인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선정된 실력 있는 음악가이다. 임인건은 1980년



대 중반부터 한국재즈계에서 독보적인 2세대 피아니스트로 군림해 온 베테랑이다. (033)339-6800

가을이면 절 안팎으로 하얀 구절초 꽃무리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는 영평사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필수 여행지다.

충남 공주에 위치한 영평사(주지 환성)는 10월 1-16일 열리는 '제12회 장군산 영평사 구절초 꽃축제'에 맞춰 산사음악회를 연다.

영평사는 10월 3일 열리는 산사음악회에 국악인 장사익씨를 초대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에 선율을 더할 예정이며 8일에는 대전윈드 오케스트라와 영평사 선모다레회원의 다도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축제기간 동안에는 구절초 꽃차 무료시음, 연꽃차, 연선식, 구절초 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시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다. (041)854-1854

이나는 기자

##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 개막

9월 30일~10월 2일 서대문아트홀에서

노인을 위한 노인에 의한 영화제가 열린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9월 30일~10월 2일 서대문아트홀 청춘극장에서 '제4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한다.

서울노인영화제는 노인 감독에게서 꾸준한 작품 제작 및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도적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젊은 감독에게는 노인과의 노년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축제다.

이번 서울노인영화제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유주제 58편과 60세 미만 세대의 노인주제 66편으로 12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서울노인영화제 사무국은 출판작 가운데 신노인상의 정립과 세대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세대친화적인 내용을 반영한 영화



27편을 선정해 영화제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영화제는 9월 30일 오전 10시 3회 대상 수상작 상영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2시에는 초청작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시작으로 개막식을 열고 10월 2일까지 오전 10시~오후 8시 5개섹션으로 영화를 분류해 상영할 계획이다.

한편 9월 30일 저녁 7시 서울노인영화제의 밤, 10월 1일 오후 4시 오픈토크, 10월 2일 오후 2시 노인미디어 특강 등 어르신과 관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02)6911-9563 이나는 기자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입니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हे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